

車·디스플레이·유통·카드 등 신용등급 먹구름 속 부정적 관찰

# 21개사 6개월내 강등 예고… 연초 신용한파 닥쳤다

신용등급 하락 땐 조달금리 상승  
채권값 떨어지면 기관 투자 감소

#. 지난해 12월 27일, 미래에셋대우에 우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장기신용등급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단계 주저 앉았다는 신용평가사의 통보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형 증권사와의 이익창출력 차별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공격적인 투자로 규제비율 하락 등을 신용등급 하향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1~9월 기준 순이익이 3821억원에 불과했다. 경쟁사인 한국투자증권(4135억원)이나 NH투자증권(3086억원)에 못미치는 숫자다. 나이스신평은 "해외 사업확대 초기에 자산이 다소 집중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면 회사의 순자본비율은 중기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 크지 않은 가운데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그룹의 핵심회사라 재무부담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올 잣빛 경제전망에 대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의 '킬날'이 매서워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신용등급 상승 기조가 둔화된 가운데 '네거티브' 딱지가 붙은 기업도 적잖다. 일반적으로 신평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부정적 관찰대상(네거티브)에 올리고 3~6개월 사이에 등급을 강등한다.

13일 신평가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A-' 등급 이상 기업 중 부정적 관찰 대상은 21개사에 달한다.

최근 신평사들이 기업을 부정적 대상에 올리고 실제 등급을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간격도 짧아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계열의 한 임원은 "반도체 경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전반에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은데 우리라고 좋을 까닭이 있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구조조정해야 할 판이다"면서 "설비투자라도 늘리려면 외부 자금을 끌어 써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비금융 민간기업 23개사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4개사와 SK텔레콤을 '부정적' 등급 전망 대상에 올려놨다.

문제는 부정적 낙인이 찍힌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 성장을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2019 한국 신용전망' 브리핑에서 "한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성장세 둔화가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9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3%로 조정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マイナス'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김상만 연구원은 "지난해 등급이 오른 곳은 일부 업종이나 계열에 국한됐다. 또 외형 측면에서 대어의 약

진보다는 중소형 니치 플레이어의 선방이 두드러졌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하향 조정에도 과거 구조조정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경기둔화 가능성은 높은 2019년의 사업 환경을 감안해볼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한국기업평가는 '2019년 주요 산업 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을 주제로 크레딧 세미나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매유통, 신용카드, 대부 등 6개 산업은 부정적으로 꼽았다.

한기평은 "자동차업체의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지만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평은 내수시장 포화 및 수출시장 불확실성으로 국내생산 경제 기조가 지속되는 점과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용등급과 채권 평가가격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자동적으로 하락한다. 네거티브 딱지가 붙은 경우 등급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인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믿었던 반도체마저… 韓 경제 대들보 흔들린다

### ① 제조업 경기전망 BSI 83 '흐림'

올 1분기 반도체 경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경기도 대부분 나쁜 전망치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560여개 제조업체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시황 전망 83, 매출 전망 85다.

이는 전분기보다 각각 9포인트, 1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BSI가 떨어진 것은 3분기 연속이다. 부문별로는 내수 전망치가 93에서 84로 크게 악화됐다. 수출은 96에서 93으로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11에서 90으로 폭락했다. 자동차도 93에서 78로 크게 떨어졌다. 철강금속(94→77), 조선·기타운송(98→88)도 하락폭이 컸다. 그나마 전자산업(89→91)과 섬유(85→91)만이 오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스1

른 종목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1로 100을 지키지 못했다. 1분기 성장이 어려워졌다

는 의미다. 중소기업도 83으로 여전히 불황이 예상됐다.

/김재웅 기자 juk@

### ② KDI "내수부진 지속·수출 위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에 대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KDI는 13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경기둔화했다고 판단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는 악화하는 양상이다.

KDI는 작년 11월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둔화된 상황"이라며 경기둔화했다는 평가를 공식화했으며 12월에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기술했다.

KDI는 작년 8월까지는 경기가 개선 추세라고 진단했으나 9·10월에는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이 경기둔화가 이어진다고 평가한 주요 이유로 보인다.

KDI는 "소매판매액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 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1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증가(1.0%)하기는 했지만 같은 해 9·10월 평균증가(2.8%) 수준을 밑도는 등 증가세가둔화했고,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기준치 100보다 낮은 97.2에 그쳤다.

지난달 수출액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 "전세계 통신사 5G 조기 사용화 가시화"

#### » 1면 '통신 빨라진다'서 계속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CE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에서 5G 글로벌 기술 파트너를 체결하면서 통신업체의 리더로 나가는 게 LG유플러스가 산업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으로 놓이는 게 아닌가 한다"며 "구글과의 VR 콘텐츠 제작을 채택하는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와 기술 협력이 맞물려서 5G 가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CES를 통해 전세계 통신사들의 5G 조기 상용화가 가시화 됐다"



LG유플러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부터 세 번째)이 센트럴 훌(Central Hall)에 위치한 인텔 전시장을 방문했다. /LG유플러스

며 "통신사와 제조사, 글로벌 사업자 간의 협력 하에 5G 실감형 미디어, 자율주행 시장 도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中企 이어 대기업… 경제분야 성과 '집중'

#### » 1면 '文, 경제행보 가속'서 계속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폭넓은 만남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 "중소·벤처기업인들에 이어 대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해에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는 이유는 이렇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올해는 국민들에게 필히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보여주고자 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서일까. 노비서실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을 "전기업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노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친노동'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